

## 총장-뉴스레터 – 76 (2024-3-15) 출 20 장 1 절-6 절 (제 1, 2 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1-3)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달하였다. 시내산은 출애굽의 첫 목적지이자 결정적인 목적지요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체결의 장소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다다랐다.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근거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장점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하나님은 맨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14 장) 지켜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16-17 장). 이제 문제는 이 백성의 삶 전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언약).

###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사장 같은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유가 되게 정해진 것이다.

### 모든 백성을 성결케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성결케 하여야 한다. 곧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준비하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옷을 빠는 일, 금욕하는 일이 포함된다. 옛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특별히 그리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들어설 수 있는 산에 가득하다. 모세는 백성이 삼갈 일들을 다시 한 번 단단히 알려주어야 한다. 모세조차도 지나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야 한다고 고집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보아서 안된다. 그가 '산을 거룩하게 한다'고 함은 그 산이 거룩하다고, 곧 그 산에 함부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 제 1 계명

십계명은 사람의 자유를 마구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란 값진 보물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가 되는 사건을 특별히 각인시키신다. 계명 준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남에게 알리는 길이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숭배할 유혹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생활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였는데, 이 생활근거를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던 자연 세력들에게서 기대했다 (다산 종교의식). 겉보기로는 신성을 빼앗긴 세상을 향해 마틴 루터는 첫째 계명이 언제나 현실적인 것임을 밝히면서, '그로부터 네 삶을 기대하는 것, 네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네 하나님이자 우상이다' 하였다. 어떤 교리문답에서는 '지금 네 마음에 두고 네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네 하나님이다' 하였다.

## 제 2 계명

둘째 계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우상을 금하는 것은 이미 첫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단계로 그 범위를 넓혀서 형상화를 일절 금하는데, 형상을 만들면 너무 쉽게 오용되고 형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다른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다. 뒤이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하는 말씀에서 드러나듯, 다른 신들의 형상도 문제 삼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금하는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기(또는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 생각하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시내산 선민 언약이 체결되고 유지되기 위한 세부 조건으로서의 구약 율법의 대강이 수여되고 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일방적 은혜에 대한 조건으로서 이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규정한 여기의 율법 조항들도 비록 동기와 형식의 측면에서는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상호간의 이해 타산적 조건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선민의 바른 삶의 기준(Standard)으로 규정 제시한 일방적이고도 절대적인 명령 (Order) 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이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유지하며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인생들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과 평화 속에 번영과 기쁨을 구가할 수 있도록 돕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